

내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김광현**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욕구의 단계와 이데올로기
- III. 욕구-이데올로기 조합 모델과 내포
-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내포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매슬로가 말하는 인간의 다섯 단계 욕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생겨나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다음은 문화권에 따라 어떠한 이데올로기-코드의 조합이 자리 잡게 되는지를 대표적인 사례의 모델화를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흔히 문화적 차이로 간주되는 것이 결국 이데올로기-코드의 조합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기호의 내포가 이런 차이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달리 말하면 이 논문은 내포의 문제를 코드에 국한하여 보려는 관점을 넘어 문화적 의미로서의 내포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열쇠어 : 욕구, 이데올로기, 문화, 코드, 내포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대구대학교 연구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gnsis119@nate.com

I.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 우리는 기호의 문화적 의미 또는 감정적 의미라고 일컬어지는 내포(connotation)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재조명할 것을 제안해 본다.¹⁾ 달리 말해 기호의 내포는 문화 코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를 넘어 코드를 생성하는 건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에서 내포의 문제를 한 단계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매슬로(A. H. Maslow)가 말하는 욕구의 다섯 단계가 각각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코드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²⁾ 그 다음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분포되는 욕구-이데올로기의 몇 가지 사례를 모델화하여 그 조합을 분석해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흔히(나라별 또는 연령별)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결국 이데올로기의 분포 및 조합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는 다양한 기호들의 내포적 차이로 드러난다는 문제제기에 우리의 논점을 집중해 보기로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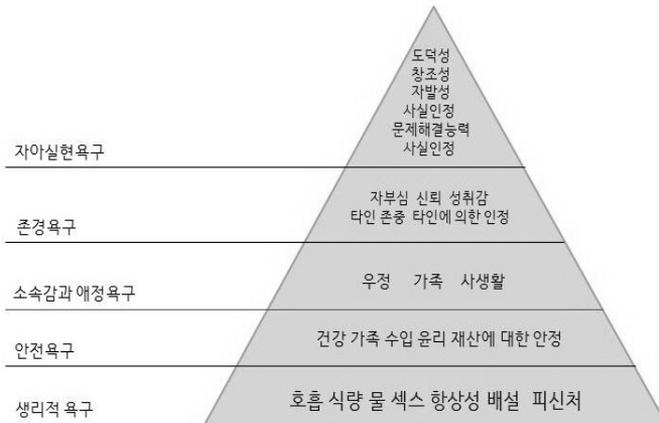
II. 욕구의 단계와 이데올로기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문화와 역사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척이나 다르며, 같은 시대의 동일 문화권에서도 계층 간의 차이도 드러

-
- 1) 지금까지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수많은 화자들과 심지어는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자 ‘총체적 의미 영역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미 분할된 현실’로 정의하는 움베르토 에코(U. Eco)의 관점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움베르토 에코, 『기호와 현대 예술』, 열린책들, 1998, 160쪽. 이데올로기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U. 에코, 『이데올로기』, 열린책들, 2013, 19~23쪽을 참고할 수 있다.
 - 2) 매슬로의 욕구 이론은 김광현, 「이데올로기의 존재론적 동기」, 『기호학연구』, 제 34집, 2013, 8~25쪽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으며 이 논문은 욕구-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욕구-이데올로기-코드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3) 이 글에서 사용하는 외시와 내포의 개념은 에코가 정리하는 엘므슬에우의 이론에 기초함을 밝힌다. 움베르토 에코, 『기호』, 열린책들, 2000, 129~134쪽.

난다. 중세인과 현대인의 우주관은 거의 공통점을 갖지 않으며, 21세기의 프랑스 여성과 베두인 여성의 성적 가치관도 비교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50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한 이데올로기와 지금의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유형과 강도는 다를지라도 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 건축과 의상, 문학, 소비, 농담의 유형도 다른데 이 모든 것은 코드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내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드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데올로기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슬로의 욕구 이론은 인간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 이론으로서 널리 응용된 바 있다.⁴⁾ 그의 이론은 아래와 같은 도표로 요약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욕구 단계에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발생하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4) A. 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50, 1943, pp.372~382.

1. 생리적 욕구 단계의 이데올로기/코드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공기, 먹이, 물, 옷, 짝짓기 대상, 피신처 등을 확보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이런 욕구는 원시시대를 떠올리며 동물의 욕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인간은 진화를 했으며 거기에는 집단이 공유하는 사고의 틀 내지는 원시적 상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생리적 욕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초기의 인간은 깨어 있는 동안 거의 모든 에너지를 생명을 지키고 종을 보존하는 일에만 쏟아 부었다. 하지만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인간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며(예를 들어 위험 알림, 협동 방어 및 사냥), 다른 동물과 달리 협력의 간절한 필요성은 언어를 탄생시켰다. 생존을 위한 기초 소통의 코드와 개념 체계가 탄생한 거다. 또한 언어는 유대감을 높이고 조직력을 강화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언어에 기초하는 인간만의 조직화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항상 바뀌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협력의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이런 상호작용은 수백만 년이 지나도 동일한 행동 패턴을 유지하는 유인원이나 개미 조직보다 훨씬 더 유리한 번식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 전체가 공유되어만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의 무의식적인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나마 우리는 이런 원초적이며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의식적 동의를 생존형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렇지만 생존형 이데올로기가 원시 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또는 전쟁이 발생해도 그것은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유럽의 중세 이데올로기도 생존의 욕구에 기초하는 특징을 갖는다. 오늘날의 관점

에서 보면 중세의 이데올로기는 여러 면에서 비합리적이며 특히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가치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⁵⁾ 초기 중세가 그랬듯이, 생계와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금욕주의, 사회적 계급화 내지는 지배자에게 복종과 초자연적 존재의 숭배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갖는다.⁶⁾ 지젝(S. Zizek)은 “봉건제에서는 인간관계가 이데올로기적인 신앙과 미신의 그물망을 통해 매개되었으며 신비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이며, 이에 따라 주인은 카리스마적인 매혹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말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그런 종속관계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매우 불평등하거나 낯설게 보이는 제도들도 나름은 존재의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2. 안전 욕구 단계의 이데올로기/코드

안전욕구(Safety needs)는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에 생겨나는 욕구로서 신체적, 감정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리킨다. 이는 또한 재해, 범죄, 가난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미래에 대한 예측성, 확실성, 안정성을 구축하려는 욕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안전 욕구는 이미 확보한 생존의 인프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안정적인 예측성을 확보하려는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이때 가장 우선시 되는 이데올로기는 본래 의미의 보수주의(conservatism)일 것이다.⁷⁾ 이런 이데올로기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 범주는 가족, 소유, 제도화, 지속성이다.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은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거나 더욱 안정된 조직을 구축하게 하는데 이는 생존의 욕구

5) 김광현, 『이데올로기』, 열린책들, 2013, 24쪽.

6)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69~70쪽.

7) conservatism은 ‘보존하다’, ‘지키다’를 의미하는 conserve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이다.

단계에서 이미 생겨난 조직의 위계질서를 당연시 하는 가치관과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부계제도를 비롯하여 더욱 체계적인 노동 분화와 심지어는 일부일처제를 빙자한 여성의 분배 제도가 생겨나기도 하며, 이런 제도를 지지하는 특정 종교의 이데올로기가 발생 내지는 도입될 수 있다. 이슬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샤리아(Sharia)를 비롯하여 수 세기 동안 유럽 전역을 지배한 가톨릭교회의 위력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보수주의가 다양한 금기 사항,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대상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양분하는 태도, 지배계급 체제, 지도자에 대한 추종, 카리스마, 트로피즘(trophyism, 공적과 용기를 기념하려는 행위) 등의 코드들 갖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안전 욕구에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정치제도를 막 도입한 일부 신생 국가에서 대통령을 제왕 내지는 영웅으로 치켜세우려는 욕망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비유하자면 생리적 욕구가 그날그날의 협동 사냥을 가능케 했다면 안전 욕구는 먹이의 안정된 확보를 위한 창고 짓기와 지키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애정 욕구 단계의 이데올로기/코드

애정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는 집단을 형성하거나 집단에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소속감의 욕구이다. 기본적으로 애정 욕구 단계는 인간이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안정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안정은 그것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가 더욱 굳건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집단을 매개로 더욱 안정된 정서를 확보하고 소속감을 통해 개인 정체성과 지위를 찾고자 한다. 이때도 가족은 공동체의 기본적인 세포 조직이자 불가침의 대상이지만(이는 안정된 성적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개인은 그것을 넘어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나름의 역할을 부여

받고자 하는데 이런 소속감의 갈망은 애국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 부르디외(P. Bourdieu)의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사회자본이 위력을 갖는 시대, 다시 말해 인맥을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간주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⁸⁾ 이때 가장 미화되는 것이 이타주의, 의리, 호혜주의,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집단주의라는 하위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 코드들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코드가 중시되는 문화에서 기호 ‘혼인’이 갖는 의미와 형식은 오늘날의 서유럽에서 통용되는 그것과 제법 다를 것이며 ‘개인주의’는 부정적인 내포로 채워질 것이다. 또한, 애정 욕구 단계에서는 정서 교환과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상징 교환(예를 들어 선물 주고받기, 에티켓)도 활성화 된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는데 그런 코드들은 세월을 거둬들수록 확고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게 된다(나중에는 선물 주고받는 날도 지정된다). 또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것은 여러 위계 조직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근대적인 의미의 계층-집단 탄생의 기원이 된다. 하지만 집단주의는 집단 간의 배타주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는 더욱 강력한 권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⁹⁾ 유럽 역사를 장식한 절대군주의 시대와 신흥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재 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4. 존경 욕구 단계의 이데올로기/코드

소속감이 확보된 후,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집단 내에서 자신만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매슬로가 말하는 존경 욕구(Esteem needs)이다. 존경의 욕구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8) P. 부르디외,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 1998, 9쪽.

9) 기본적으로 집단주의는 폐쇄성을 가지며 그것이 강화될수록 나시즘(nosism) 역시 강도가 높아지면서 배타주의를 낳게 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해 ‘우리’의 강력한 관념은 ‘우리-아님’과의 대립적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끌어들이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욕구는 집단 내에서 나름의 경쟁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타인보다 더 많은 먹이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잉여의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일종의 신뢰 창고를 만드는 행위와 비교될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조금씩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이 생겨나는 단계이지만 이런 개인주의는 집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단계의 이데올로기는 초기 개인주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애정의 욕구 단계에서 형성된 문화 코드들이 경쟁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의 잣대가 되는 문화 코드들에 더욱 충실해지며 그 결과 코드들은 점점 더 규범화되기에 이른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시대의 궁중 문화와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체제 순응주의(conformism)를 떠올릴 수 있다. 보수·순응주의는 언어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농담(또는 언어적 유희)이 제한되며 특히 규범을 벗어나는(예를 들면 성에 대한) 담론은 금기시 되지만 동시에 화려한 수사를 앞세워 사치스러워지기도 한다. 상류 계층은 더욱 복잡해지는 의복이나 매너(식사, 파티, 사교 매너) 이외에도 권위적인 언어와 몸짓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이런 코드의 사용은 다른 계층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수단이자 동일 계층 내에서는 경쟁의 수단이 된다. 자연스럽게 소비는 경쟁의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한다. 18~19세기 유럽 사회의 의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동일한 유행(코드)을 따르면서 고급화를 통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폭스(E. Fuchs)는 프랑스의 절대주의 시대의 언어와 소비에 대해 “언어는 내용보다는 재치만을 뽐내야 했고 당연히 의상은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발이다.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욱 큰 가발을 요구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1미터가 넘는 것도 등장하게 되고, ... 1720년의 파리의 경우 비단 양말 한 켤레가 40리브르, 흑회색 라사 1피트당 70, 80리브르였다. 사교계에 드나드는 남자는 의복에만 1,200리브르에서 1,600리브르의 큰돈을 썼다. ... 하지만 1709년 당시 말 한 필은 40~100리브르, 암소는

50과 염소는 5리브르에 거래가 되었다.”고 말한다.¹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외형적 소비는 이제 의복을 넘어 자동차, 액세서리, 주택, 자녀교육에 까지 영역을 넓혀 갔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소비사회의 탄생이 산업혁명과 대량생산 사회 이전에 태동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류 계층은 이런 소비를 주도하고 나머지 계층은 그걸 모방한다. 베블런(Veblen) 효과를 탄생시킨 이런 소비는 요즘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화 코드이기도 하다.¹¹⁾ 단지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연예인들이 모방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5. 자아실현 단계의 이데올로기/코드

자아실현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는 개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는 자기 발전을 통한 성장 및 잠재력의 극대화이며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이기도 하다. 매슬로는 이런 욕구를 인간이 더욱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그런 모습을 갖고자 하는 욕구로 설명한다(이때 ‘그런 모습을 갖고자 하는 욕구’ 그 자체는 하나의 문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각하고 현실과 더욱 현명한 관계를 맺는다. ... 이러한 투명한 지각이 가져오는 최초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고 부정직한 성격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 ... 이들은 또한 결핍동기에 근거한 소망과 두려움에 얽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것에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 그들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닌 문제 중심적 사고를 하려는 경향 덕분에 삶을 더 효율적으로 영위한다.”¹²⁾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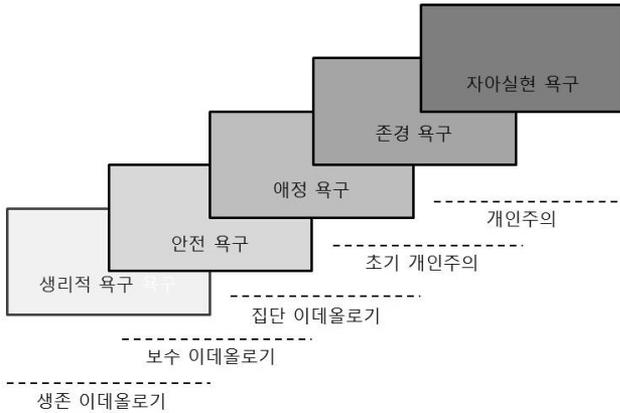
10) E. 폭스, 『풍속의 역사』 3권, 까치, 1997, 64~65쪽.

11)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T. B. Veblen)이 규명한 소비 유형으로서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값이 떨어지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는 경향을 가리킨다.

12) A. H. 매슬로, 『존재의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5, 17~19쪽.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과 충실함을 찾는 단계이자 타인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에서 독창성과 창의력의 미학이 중시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자아실현 단계는 집단주의를 벗어나서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와 그에 따르는 집단의 폐쇄성은 거의 사라지고 배타적 사고도 와해된다. 하지만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의 존엄, 가치, 권리 등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국가나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스스로와 타인도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철학적·정치적·도덕적 개념이다.¹³⁾ 이런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문화 규범을 탈피하거나 무너뜨리려 하며 독창적인 취향을 찾게 만드는 이른바 반순응주의(anticonformism)를 지향하기도 한다. 그것은 교육의 다원화, 혼인 의무의 와해, 맹목적인 소비나 유행으로부터의 해방을 촉진시키고 생산체제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방향을 바꾸며 문화산업이 활기를 띤다(이 때부터 소비는 스노브(snob) 효과를 지향한다).¹⁴⁾ 자본의 관점에 보면, 존경 욕구의 단계가 사회자본의 축적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문화자본의 시대가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코드들이 혼합되고 있고 타지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사생활(privacy)의 코드들이 자리를 잡는다. 90년대의 서구사회를 관찰하면서 브룩스(D. Brooks)가 보보스(Bobos)라고 부르기 시작한 (신)계층을 떠올릴 수 있다.¹⁵⁾ 지금까지 검토한 욕구-이데올로기의 관계와 변화를 가장 표준적인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3) 간혹 한국어에서 개인주의가 부정의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내포를 갖기 때문이다.
 - 14) 스노브 효과는 대중과는 다른 소비를 즐기는 소비패턴을 가리킨다. 국내 사진은 snob를 속물로 번역하는데 이 개념을 비물질적인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남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
 - 15) Bobos는 bourgeois와 bohemian의 합성어인데 그 성격은 부르주아에 버금가는 수입이 있으면서도 보헤미안적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90년대 당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또 다른 문화계층으로 자리를 굳혔다. 보보스들은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기보다는 오지 여행을 즐기고 고급 저택이나 가구, 자동차보다는 무형의 문화 소비(공연, 박물관)를 더 즐기는 이른바 스노브 효과라는 소비 코드를 지향한다.



[도표 1]

물론 이 도표는 표본적이고 이론적인 도표이다(여기서는 이런 도식화를 모델화라고 불러 본다). 이렇게나마 정리를 해 보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해당 이데올로기들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의 모든 사회집단이 무조건 모든 욕구를 방일한 방식으로 거친다 말할 수는 없다. 욕구-이데올로기는 중첩될 수 있는데 그런 중첩 부분들은 한 사회가 발전하는 양상, 예를 들어 내·외부 상황의 변화 내지는 욕구가 바뀌는 속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이제 부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례와 내포의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I. 욕구-이데올로기 조합 모델과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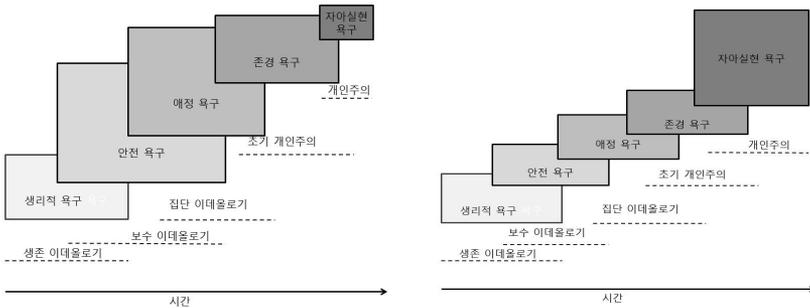
1. 욕구-이데올로기의 변화

이런 저런 나라와 민족 또는 공동체가 어떠한 자연적 환경에서 어떠한

이런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풀이하자면 피구미족에게 사냥은 취미보다는 먹이 획득의 수단이며, 중세와 현대를 대조해도 의복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모델1에서 기호의 의미는 사실상 외시에 ‘좀 더’ 가까운 가치를 갖게 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의 차이는 수많은 기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무기, 혼인, 고기, 채식, 배움 등).¹⁶⁾

2. 욕구-이데올로기의 비중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다섯 가지 욕구를 모두 경험했다라도 문화에 따라서는 특유의 역사성으로 인해 특정 욕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모델화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모델 3]

[모델 4]

우리가 모델3과 모델4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욕구/이데올로기의

16) 피구미족에게 의복의 상징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피구미족을 직접 만났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 족장은 분명 지위를 나타내는 의복을 사용하는 반면에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그런 상징은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 분배는 있어도 계급개념의 도입이 덜 필요했을 수도 있다.

비중 차이이다. 두 사례 모두 다섯 가지의 욕구 단계를 경험했지만 각각의 비중이 다른 경우이다. 얼핏 보면 모델3은 모델4의 전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모델4와는 달리, 모델3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안전 및 애정 욕구 단계부터 기본 이데올로기가 종교 내지는 특정 철학(기독교적 금욕주의, 청교도, 유교, 이슬람)과 같은 강력한 현상유지(status quo) 이데올로기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욕구가 바뀌어도 기존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굳건해서 다음 단계의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잡는 과정이 늦추어질 수 있다(예를 들어 집단주의와 심지어는 위계질서가 극도로 미화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진보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와 유교적 가치관의 관계, 청교도적 사고와 미국의 정치 문화(미국에서는 인구의 76%가 아직도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나 더욱 적나라하게는 석유달러 덕분에 첨단 도시 인프라를 자랑하지만 이슬람 율법이 아직도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특히 두바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북유럽 나라들처럼, 욕구의 변화가 특별한 제동 장치 없이 사회 내·외적 환경 변화와 함께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의 욕구-이데올로기의 분포를 모델4로 표현해 보았다. 이렇게 문화마다 이데올로기적 인프라가 다를 수 있으며 이 점이 문화 차이의 근간을 구성하는데 이 두 모델에서도 기호의 내포적 의미는 차이를 드러낸다. 기호 ‘종교’, ‘개인’, ‘음식’, ‘미술’, ‘여행’을 예로 들어 그 차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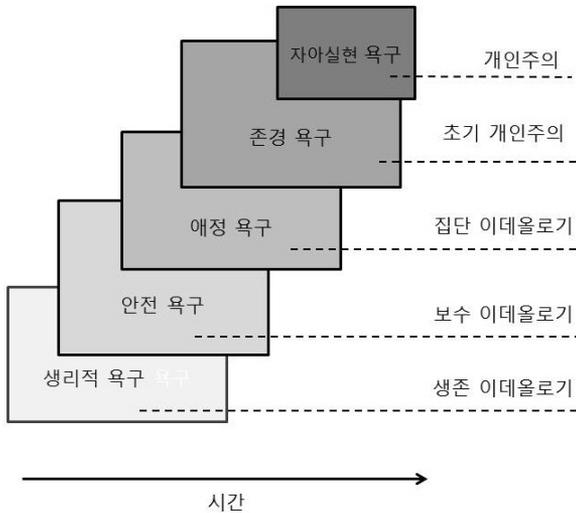
	모델3	모델4
종교	윤리, 생활 지침	상징성, 과거 제도
개인	이기주의	상호 존중
음식	생존, 나눔, 공동체	맛, 건강
예술	사치, 특수 계층의 전유물	즐거움, 지적 유희, 과시
여행	가족, 휴가	이국적 취향, 모험

[도표 3]

이렇게 욕구-이데올로기의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친 문화일지라도 각 단계의 비중에 따라 기호의 내포는 다를 수 있는데 이 모든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델4에 비해 모델3의 사회가 더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욕구-이데올로기의 중첩

그러면 이제는 다음과 같은 욕구-이데올로기의 분포를 가정해 보기로 한다.



[모델 5]

우리는 모델5를 통해 욕구-이데올로기가 더 많이 겹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이런 현상은 너무 빠른 현대화 내지는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생존/보수/집단 이데올로기

가 겹치고, 다시 보수/집단/초기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중첩되며, 집단/초기 개인주의/개인주의가 다시 겹친다(교집합이 거의 이어지는 셈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이데올로기 분포를 떠올리기도 한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는 생존·안전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이데올로기와 아직 건재한 집단주의에서 이미 뿌리내린 도시문화와 개인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갖지만 이 모든 것이 자리 잡는 상대적으로 시간은 매우 짧았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미신이 잔존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최신 패션에 전적으로 무관심한 노인층이 있는가 하면 획일적인 유행을 따르는 대중층이 두터우며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이들도 간혹 있다. 일부 계층은 농경문화에 충실한 반면, 또 다른 계층은 도시의 익명성이 허락하는 각종 유흥을 즐긴다. 그리고 이런 코드는 공존하면서 간혹 대립하거나 충돌하기도 한다.¹⁷⁾ 위에서 언급한 몇몇 기호의 내포적 의미 차이를 연령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노년층	중년층	젊은 층
의복	기능성	사회적 지위	상징성(개성), 멋
음식	생존, 나눔, 공동체	나눔, 공동체, 품위, 맛	맛, 영향
친구	협력, 의리, 연륜	협력, 의리, 인맥	협력, 재미
선물	기능성, 감사의 표현	상징성, 관계 유지, 과시 수단	상징성
종교	윤리, 생활 지침	윤리, 생활 지침, 인맥	윤리, 안식
개인	이기주의	이기주의/상호 존중	상호 존중
미술	모름	사치, 특수 계층의 전유물	즐거움, 지적 유희, 과시
여행	효도관광	관광, 가족, 휴가	휴가, 이국적 취향

[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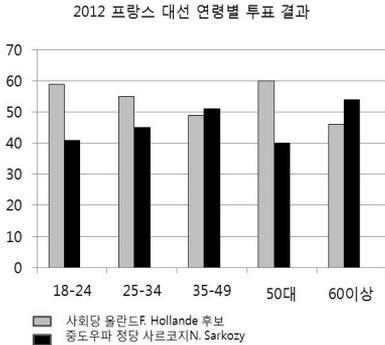
17) 김윤성은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90퍼센트가 넘고, 정식 신자는 아니어도 이따금 사찰이나 성당 또는 교회에 가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 곳을 하고 점을 보는 일, 택일을 하고 사주와 궁합을 보는 일, 연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일, 풍수지리를 따지는 것”은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한다. 김윤성 외, 『종교전쟁』, 사이언스북, 2009, 87쪽.

이런 기호의 목록은 매우 길게 이어질 수 있으며 그중에는 특정 계층이 전혀 모르는 것도 있다. ‘사오정’, ‘U턴족’, ‘뽀뽀’, ‘섹기’와 같은 젊은 층의 전유물인 신조어들과 일부 외래어들(재즈, ABS, 에어백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내포보다는 외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는 기호체계 자체의 문제이다).¹⁸⁾ 어쨌든 이러한 어휘 차이 이외에도 한국 노년층과 젊은 층을 직접 대립시켜 보면 내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의 소통 장애나 오해 및 갈등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연히 맛, 습관, 패션에서도 세대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손주는 시골 할머니가 끓인 닭백숙보다는 프라이드치킨을 더 좋아할 수 있으며 도시 출신의 젊은 며느리는 커다란 냄비에 담긴 찌개를 각자의 손가락으로 함께 떠먹는 행위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시골 노인은 막내딸의 미니스커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수입 사료만을 먹는 아들집 애완견을 못마땅해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식을 재정적으로 돕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예를 들어 슈퍼 바이크를 사고 희귀음반을 수집하면서 혼자 오지 여행을 즐기는) 아버지는 원망 받을 것이다. 이런 소통의 장애요소 목록은 매우 다양하고 길 수 있는데 그중에는 일상적인 기호들도 대거 포함된다(돈, 학원, 제사, 흡연, 영화, 선글라스, 비타민, 정치/정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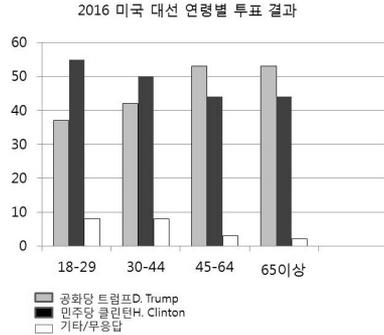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가 모델5에 가깝다는 특징, 즉 여러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특징은 정치적 보수와 진보의 격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둘의 차이가 연령과 더욱 밀접하게 비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선거 때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편차를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프랑

18) ‘뽀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뜻을 가지며, ‘사오정’은 45세 정년, ‘U턴족’은 사회진출에 실패하고 공부 더 하겠다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족속, ‘섹기’는 성적 매력이 매우 강하게 드는 이성에게 쓰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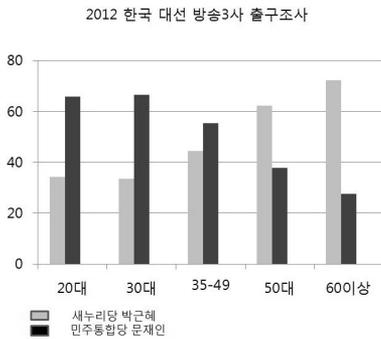
스, 미국, 한국의 대선 투표결과를 다음 도표를 통해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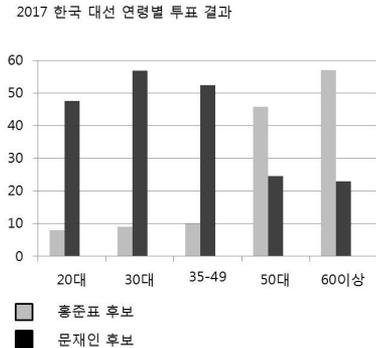
[도표 5]



[도표 6]



[도표 7]



[도표 8]

19) 도표7은 2012년도 sondage OpinionWay(<https://opinionpublique.wordpress.com/>)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며, 도표8은 2016년 12월 1일자 BBC가 발표한 조사이다. 도표9는 2012년 당시 KBS, MBC, SBS 공동 조사이다. 도표9는 19대 대선 때 중앙일보가 조사한 표를 정리한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1556537>. 단지 이 표에는 문재인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만 표시했다.

통상적으로 민주국가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항상 있어 왔으며 그것은 대체로 연령대와 다소 관련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2년도 프랑스 대선 연령별 투표 결과(도표7)와 2016년 미국의 투표 결과(도표8)를 보더라도 진보를 자칭하는 이들이 젊은 층에 좀 더 분포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노년층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연령에 따르는 이념 차이가 유난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9와 도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와 30대의 진보 유권자의 수는 보수 유권자에 비해 두 배 이상에 이르며 50대와 60세 이상에 그 관계는 매우 급격히 반전된다. 한국의 노년층은 한국 전쟁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는 생존형 이데올로기의 확고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 노년층에서는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거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거나 인정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 대신 한국의 보수층은 안보를 중시하고 반공산주의를 강력히 표방한다. 한국의 중년 및 노년층에게 ‘공산주의’는 북한, 적화통일, 전쟁, 피난, 빨갱이 등의 내포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복지주의, 평등, 분배 또는 급진주의 등의 의미를 가지며 미국에서는 구소련, 자본주의 파괴, 노동조합 등의 의미를 가질 것인데 이런 경우는 내포의 이데올로기적 뿌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아랍인, 이혼, 유산abortion, 동성애, 전위예술, 이민, 등과 같은) 다양한 기호에서도 나타나는데 문화적 차이는 바로 이 같은 문화적 의미로 드러나며 그것은 무형의 문화 이데올로기의 “가시적” 측면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논문에서 하이퍼 코드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고자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기호의 내포와 이데올로기의 관

계를 재조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슬로가 제시하는 인간의 다섯 단계 욕구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그것을 토대로 이데올로기들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고 중첩되는지를 일종의 모델화를 통해 분류해 보았으며, 흔히 문화 차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포 및 중첩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 모든 차이는 기호의 내포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다. 달리 말하면 이 논문은 기호의 내포를 보다 심층적으로, 즉 코드 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편의 논문으로 정리하는 것은 분명 무리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의 욕구 단계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풍속학적·사회학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지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전반을 도식화 및 모델화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근·현대의 이데올로기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권력과 매스컴의 문제, 즉 통제되는 의미체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점도 거듭 밝혀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광현, 「거시 코드로서의 이데올로기 문제」, 『기호학연구』 제 6집, 1999, 11~32쪽.
_____, 「이데올로기: 통시적 및 공시적 고찰」, 『기호학연구』 제 16집, 2004, 16~25쪽
_____, 「문화 유전자와 문화 코드」, 『기호학연구』 제 26집, 2009, 26~46쪽.
_____, 「이데올로기의 존재론적 동기」, 『기호학연구』 제 34집, 2013, 8~25쪽.
_____, 『이데올로기』, 열린책들, 2013.
-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 콘텐츠』, 북코리아, 2011.
- 김윤성, 신재식, 장대익, 『종교전쟁』, 사이언스북, 2009.
- 도킨스, R.,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04.
- 매슬로, A. H., 『존재의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5.
- 매슬로, A. H. 외, 『가치와 존재』, 교육과학사, 1994.
- 보드리야르, J.,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 부르디외, P.,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I, II, 새물결, 1996.
_____,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 1998.
- 브룩스, D., 『보보스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 동방미디어, 2001.
- 에코, U., 『기호와 현대 예술』, 열린책들, 1998.
_____, 『기호』, 열린책들, 2000,
_____, 『미의 역사』, 열린책들, 2006.
- 지젝, S.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 폭스, E., 『풍속의 역사』, 1·2·3권, 까치, 1997.
- 프로이트, S.,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Ecyclopédie Universalis,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art-prehistorique/>.

Maslow, A. 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50, No 4, July 1943. pp.370~386. pdf.

<https://docs.google.com/file/d/0B-5-JeCa2Z7hNjZINDNhOTEtMWNkYi00YmFhLWI3YjUtMDEyMDJkZDExNWRm/edit>

Study on the connotation and ideology

Kim, Kouang Hyeun

In this study, we propose to go beyond the given semiotic codes in order to try to understand the ideological motivations that underlie them. For this reason, it seemed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ausal links between the ideology as worldview and the five levels of human need as proposed by A. H. Maslow. After this, we attempt to describe how these ideologies interlock, intertwine and combine to form a complex ideological infrastructure that differs from one cultural community to another (or from one time to another) and determines not only the ontology of the semiotic codes but also the connotative meaning of the sign in a given culture.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notation and ideolog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what are called cultural differences.

Keywords : need, ideology, culture, code, connotation

투고일 : 2017. 05. 16. / 심사일 : 2017. 06. 05. / 게재확정일 : 2017. 06. 12.